

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배포시 | 배포 일시 | 2022. 7. 4.(월) 배포시 | |
| 담당 부서 |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상규 (044-215-872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유연정 (044-215-8724) |

**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,
한-중미 경제협력을 위한 CABEI Korea Week 개최**
- 한국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투자설명회 등 포함 -

□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*)는 7.5(화) ~ 7.11(월)간 부산·울산·서울에서 한-중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CABEI Korea Week를 개최할 예정이다.

*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y Integration : 중미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대한 투자를 위해 '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(현재 15개 회원국)

○ CABEI는 중미 인프라 투자에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다자개발은행으로, 우리나라는 '19.12월 1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영구 이사직 수입 중이며,

* 중미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(AA, S&P) 및 인프라 투자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, 대출 86.2억불 공급 (중미지역 다자개발은행 투자의 43%, '21)

○ EDCF 협조융자, 한-CABEI 협력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한-중미 경제협력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.

○ 이번 CABEI Korea Week 참석을 위해 총재, 부총재 및 11개국 이사 등 핵심인사 40여명이 방한하였다.

□ 금번 CABEI Korea Week은 ①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, ②산업 시설 시찰, ③한-중미 네트워크 만찬 및 ④한-중미 협력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,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·중남미 협회, 공공기관* 및 기업**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.

* 국가철도공단, 코레일, 부산항만공사, 가스공사, 한국전력, 발전 5사, 국립부산과학관 등

** 현대자동차, 현대중공업, 현대로템 등

□ CABEI Korea Week의 첫날인 7.5(화)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시는 홍보설명회를 통해 '세계의 대전환,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' 라는 부산세계박람회 컨셉을 홍보하고, 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미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CABEI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.

□ 이어 7.5(화)~7.6(수) 양일간 부산 및 울산에서 항만물류·수소경제·철도 인프라·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분야 산업현장 시찰과, 각 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투자 설명회가 진행된다.

○ 부산항만공사는 「On-board 선상 항만인프라 수출상담회」를 진행하여,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항만인프라 관리기술을 소개하고 친수 공간과 복합도심시설로 재개발 중인 북항 일대를 시찰한다.

○ 한국가스공사(국립부산과학관, 현대자동차 협조)는 「Clean Hydrogen Experience with KOGAS」에서 수소전기차 시승식을 통해 수소경제의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현장감 있게 홍보하고, 충전소·생산기지 등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해외 진출계획을 선보인다.

○ 국가철도공단(코레일, 현대로템 협조)은 울산-서울간 KTX 객차 내에서 진행되는 「On-rail 철도수출 워크숍 및 투자상담회」에서 한국의 철도기술 및 철도차량, 도시철도 시스템, 해외 사업현황을 소개한다.

□ 7.7(목) 「한국에너지공기업 중미진출 지원 워크숍」(18:30, 여의도 콘래드)에서는 한국전력 및 발전 5사의 해외사업 담당자가 참여하여, 기관별 관심국가의 CABEI 이사 및 사업담당자와 사업계획 및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.

□ 7.8(금) 대한상외가 주관하는 「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고위급 초청 네트워킹」(18:30, 여의도 콘래드)에서는 중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한국기업-CABEI 인프라 투자 담당자간 정보교류를 위한 만찬 개최 예정으로, 70여개 중미 진출기업*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다.

* 포스코건설, 현대엔지니어링, 현대건설 등 주요 인프라기업 및 중미진출 중소기업 70여개社

□ 7.11(월)에는 한·중남미협회의 공동으로 「한-CABEI 협력포럼」*(15:00, 여의도 콘래드)을 개최할 예정이다. CABEI 공공, 민간개발 국장 및 한국 신탁기금 담당자가 직접 진행중인 프로젝트 및 참여방식을 설명**하고, ICT 세션을 통해 한-중남미 스타트업 기업들간의 협력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.

* CABEI-KCLAC Forum 2022: Promising Industrie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merica

- ** ❶ 공공개발국장(Manuel Torres) : 물류·에너지인프라 등 공공개발 프로젝트 소개
- ** ❷ 민간개발국장(Carlos Gomez) : 제조업·농업중미지역 민간기업 투자프로젝트 소개
- ** ❸ 신탁기금 관리자(Rigoberto Romero) : 한국신탁기금 사업절차 및 입찰방법 소개

□ 또한 CABEI Korea Week 기간 중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)등 국내 기관과 CABEI간 MOU 체결을 통해, 한국기업·기관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예정이다.

※ [참고] 참여기관별 연락처

| 기관명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| 김건민 | 010-8868-3531 |
|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| 유영섭 | 02-2036-9843 |
| 부산광역시 | 이수정 | 051-888-7763 |
| 부산항만공사 | 이용혁 | 051-999-2100 |
| 한국가스공사 | 이재훈 | 053-670-0621 |
| 국립부산과학관 | 신경진 | 051-750-2350 |
| 국가철도공단 | 황희정 | 042-607-3422 |
| 한국전력 | 양정훈 | 061-345-7036 |
| 대한상의 | 조민애 | 02-6050-3555 |
| 한중남미협회 | 한중남미협회 | 02-539-4871 |



참고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 개요
(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)

- (설립) '60.12월, 중미 5개국*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·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(본부: 온두라스 테구시갈파)
 - * 창립회원국(5개):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온두라스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
- 중미 8개국* 연합기구인 중미통합체제(SICA,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)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, 핵심가치**를 공유
 - *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과테말라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도미니카(공), 벨리즈
 - ** 민주적 안보, 기후변화 및 리스크 관리, 사회적 통합, 경제적 통합, SICA 역량 강화

□ (자본금) 수권자본금 70억불, 납입자본금 약 17.5억불(25%)

□ (총재) 단테 모씨(Dante Mossi), 국적 온두라스('18.12.1일 취임)

- (회원국) 현재 15개국*이 가입 중이며, 한국은 총 6.3억불(가입 시 4.5억불* 출자, 이후 1.8억불** 증자) 출자하여 전체 7위 투표권 보유
 - * 4.5억불 중 납입자본금 1.125억불을 외환보유액으로 4년 간('20~'23) 분할 납입
 - ** 1.8억불 중 납입자본금 0.45억불을 외환보유액으로 8년 간('20~'27) 분할 납입

< CABEI 회원국별 지분율/투표권 비중 ('22.4월 기준) >

| | |
|----------|---|
| 역내국 (8개) | 엘살바도르(10.20/10.73%), 코스타리카(10.20/10.73%), 온두라스(10.20/10.73%), 니카라과(10.20/10.73%), 과테말라(10.20/10.73%), 도미니카(공)(5.41/4.99%), 파나마(5.12/4.81%), 벨리즈(0.36/0.34%) |
| 역외국 (7개) | 대만(11.09/11.42%), 한국(9.00/7.63%), 멕시코(4.38/5.00%), 스페인(4.00/4.21%), 아르헨티나(4.37/4.25%), 콜롬비아(2.90/3.05%), 쿠바(0.71/0.64%) |

* 밑줄 : 이사국(총 12개국), ■ : 영구이사국 / 아르헨-콜롬비아 : 공동 이사실 구성

- (이사회) 현재 12개국*이 이사직 수임
 - 창립회원국: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온두라스
 - 비창립역내회원국: 파나마, 도미니카공화국
 - 역외회원국: 대만, 한국, 멕시코, 아르헨티나/콜롬비아, 스페인

□ (주요 사업) 인프라·에너지 분야 사업 승인이 50% 이상

- ('20년 승인 규모) 9개국* 26개 사업 대상 총 34.6억불
 - *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코스타리카, 파나마, 도미니카, 콜롬비아, 아르헨티나